

2019년 1월 31일

KIWOOM DAILY

키움증권 리서치센터 투자전략팀 | Strategist/Market 서상영 02) 3787-5241/ehdwl@kiwoom.com

미 증시, FOMC 결과에 힘입어 상승폭 확대 파월, “자산 축소 곧 끝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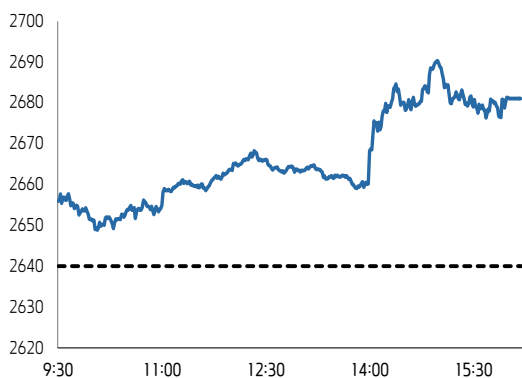
미 증시 상승 요인

미 증시는 실적 발표 이후 급등한 보잉(+6.25%)과 애플(+6.83%)에 힘입어 상승. 특히 연준이 FOMC 를 통해 금리인상에 대해 인내심을 가질 것이라고 발표한 이후 상승폭 더욱 확대. 파월 연준의장이 “자산 축소를 곧 끝낼 수 있다” 라고 언급한 점도 긍정적(다우 +1.77%, 나스닥 +2.20%, S&P500 +1.55%, 러셀 2000 +1.05%)

미 증시는 ①기업실적 ②FOMC 에 힘입어 상승. 전일 부진한 실적을 발표한 애플이 최악의 시기가 지나가고 있다는 점이 부각되며 급등. 특히 컨퍼런스 콜에서 팀쿱 CEO 가 “지난 12 월 보다 1 월에 미-중 무역분쟁이 완화되었다” 라고 주장하며 향후 중국 시장에 대한 기대감을 높이는 발언을 한 점이 긍정적인 영향을 준 것으로 추정. 더불어 서비스 부문의 순매진 증가가 향후 실적 개선을 이끌 것이라는 분석도 상승 요인. 이와 함께 보잉 또한 견고한 실적과 가이던스 또한 기대치를 넘어서자 급등. 더불어 중국이 무역 협상 결과 대규모 항공기 구매 가능성 또한 우호적인 영향을 줌. 팩트셋이 1Q S&P500 영업이익이 전년 대비 0.7% 증가에 그칠 것으로 전망하고 있어 실적에 대한 부담이 높았으나, 이날 발표된 기업들의 실적으로 부담이 완화.

한편, FOMC 결과 연준은 12 월 성명서와 달리 인플레이가 최근 몇개월 동안 더 낮아졌다고 언급하고, 금리인상에 대해 인내심을 가질 것이다 라고 주장. 특히 ‘점진적인 금리인상’ 문구 대신 ‘금리인상에 대한 인내심’을 언급한 점이 특징. 파월 연준의장도 기자회견을 통해 “미국 경기는 좋은 지점을 지나고 있다” 라고 언급. 경기에 대한 자신감 표명. 더불어 금리에 대해 “연준은 인내하고, 금리인상 가능성이 약화 되었다” 라고 주장. 또한 “현재 기준금리는 중립금리 범위안에 있다” 라고 언급. 특히 “자산 축소가 곧 끝날 수도 있다” 라고 발표하는 등 시장이 기대했던 모든 일들이 나타난 FOMC 결과 었음. 이에 힘입어 달러화가 여타 환율에 대해 급격하게 약세로 전환 했으며, 미 증시 또한 상승폭을 확대하는 등 위험자산 선호심리가 높아짐

S&P500 일중 차트



자료: 블룸버그, 키움증권

Global Indices

지수	등락률(%)	Close	D-1	지수	등락률(%)	Close	D-1
KOSPI		2,206.20	+1.05	홍콩항셱		27,642.85	+0.40
KOSDAQ		715.30	+0.61	영국		6,941.63	+1.58
DOW		25,014.86	+1.77	독일		11,181.66	-0.33
NASDAQ		7,183.08	+2.20	프랑스		4,974.76	+0.95
S&P 500		2,681.05	+1.55	스페인		9,071.50	-0.52
상하이종합		2,575.58	-0.72	그리스		635.67	+0.03
일본		20,556.54	-0.52	이탈리아		19,771.55	+0.36

자료: 블룸버그, 키움증권

Compliance Notice

본 자료는 투자자의 증권투자를 돕기 위하여 당사 고객에 한하여 배포되는 자료로서 어떠한 경우에도 복사되거나 대여 될 수 없습니다. 본 조사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 리서치센터가 신뢰할 만한 자료 및 정보로부터 얻어진 것이나, 당사는 그 정확성이나 안전성을 보장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어떠한 경우에도 본 자료는 고객의 증권투자의 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소재에 대한 증빙자료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주요 업종 및 종목 동향

페이스북 시간외로 7% 넘게 급등

보잉(+6.25%)은 양호한 실적과 가이드스 발표에 힘입어 상승 했다. 애플(+6.83%)은 부진한 실적을 발표 했으나 최악이 지나가고 있다는 분석이 제기되며 상승 했다. 큐로브(+2.94%), 스카이웍(+3.33%), 브로드컴(+1.69%) 등 부품주도 동반 상승 했다. AMD(+19.95%)도 견고한 실적 발표에 힘입어 급등 했다. 한편, 장 마감 후 실적을 발표한 페이스북(+4.32%)과 MS(+3.34%)도 동반 상승 했으며 실적 발표 이후 시간 외로 페이스북은 7% 넘게 급등한 반면 MS는 3% 넘게 하락 중이다. 한편 쉘컴(+1.56%)와 크리(+2.89%)도 견고한 실적 발표후 시간외로 2% 넘게 상승 중이다.

더불어 아마존(+4.80%)과 알파벳(+2.61%)도 실적 발표를 앞두고 강세를 보였다. 반면, 부진한 실적을 발표한 바이오업체인 암젠(-3.77%)과 의료기기 생산업체인 일루미나(+4.45%)는 급락 했다. 바이오젠(-1.98%) 등 바이오 업종도 동반 하락 했다. 더불어 부진한 실적을 발표한 제너럴 다이내믹(-2.89%)과 AT&T(-4.33)도 하락 했다.

주요 ETF

ETF 종류	등락률	ETF 종류	등락률
원유시추업체 ETF(XOP)	+2.82%	대형 가치주 ETF(IVE)	+1.19%
에너지섹터 ETF(OIH)	+2.15%	중형 가치주 ETF(IWS)	+0.94%
소매업체 ETF(XRT)	+0.39%	소형 가치주 ETF(IWN)	+0.82%
금융섹터 ETF(XLF)	+0.58%	배당주 ETF(DVY)	+0.64%
기술섹터 ETF(XLK)	+3.06%	대형 성장주 ETF(VUG)	+2.24%
소셜 미디어업체 ETF(SOCL)	+1.99%	중형 성장주 ETF(IWP)	+1.45%
인터넷업체 ETF(FDN)	+2.08%	소형 성장주 ETF(IWO)	+1.36%
리츠업체 ETF(XLRE)	+0.89%	신흥국 고배당 ETF(DEM)	+1.95%
주택건설업체 ETF(XHB)	+0.81%	신흥국 저변동성 ETF(EEMV)	+1.18%
바이오섹터 ETF(IBB)	+0.68%	하이일드 ETF(JNK)	+0.77%
헬스케어 ETF(XLV)	+1.37%	물가연동채 ETF(TIP)	+0.55%
곡물 ETF(DBA)	-0.09%	Long/short ETF(BTAL)	-0.38%
반도체 ETF(SMH)	+3.04%		

자료: 블룸버그, 키움증권

US Sector Index

S&P 500	Close	D-1	D-5	D-20
에너지	467.49	+1.33%	+2.40%	+10.24%
소재	339.20	+1.02%	+3.33%	+7.13%
산업재	601.01	+1.55%	+3.80%	+10.85%
경기소비재	852.16	+2.16%	+2.19%	+9.04%
필수소비재	538.15	+0.74%	-0.19%	+3.12%
헬스케어	1,036.15	+1.36%	-0.05%	+3.49%
금융	431.06	+0.43%	+0.93%	+8.88%
IT	1,164.51	+3.03%	+2.96%	+7.00%
커뮤니케이션	147.25	+1.23%	+0.04%	+6.10%
유틸리티	272.03	+0.65%	-0.38%	+1.27%
부동산	210.98	+0.83%	+4.21%	+9.68%

자료: 블룸버그, 키움증권

한국 주식시장 전망

위험자산 선호심리 지속

MSCI 한국 지수 ETF 는 3.00% MSCI 신흥 지수 ETF 도 2.18% 상승 했다. 야간선물은 외국인의 순매도(-580 계약)에도 불구하고 2.90pt 상승한 290.50pt 로 마감 했다. 특히 외국인의 순매도 규모는 FOMC 이후 급격하게 축소된 점이 특징이었다. NDF 달러/원 환율 1 개월물은 1,109.00 원으로 이를 반영하면 달러/원 환율은 8 원 하락 출발할 것으로 예상된다.

미 연준이 FOMC 를 통해 '점진적인 금리인상' 문구를 삭제하고 '금리인상에 대해 인내심을 가질 것'이라는 문구를 삽입했다. 더불어 파월 의장 또한 자산 축소 조기 종료를 시사하는 발언을 해 위험자산 선호심리가 높아지는 경향을 보였다. 이는 한국 증시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전망한다.

한편, 오늘 삼성전자 실적 및 중국 통계국의 제조업 및 서비스업 PMI 가 발표된다. 최근 시장에서는 마이크론을 비롯한 애플 등에 대해 최악의 경우가 지나가고 있다는 분석이 이어지고 있다. 삼성전자의 컨퍼런스 콜에서 이러한 점을 시사하는지 여부가 관건이다. 더불어 중국 제조업 PMI 는 전월(49.4) 보다 둔화된 49.3 으로 예상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중국 산업생산이 전년 대비 5.7% 증가하는 등 견고한 흐름을 보였기 때문에 예상을 상회할 수 있다는 점을 배제할 수 없다.

주요 경제지표 결과

미국 고용지표 개선

1 월 미국의 ADP 민간 고용 보고서에서 비농업고용자수는 전월(26.3 만건) 보다 감소한 21.3 만건으로 발표되었다. 그러나 예상치(18 만건)를 상회해 나쁘지 않은 결과였다.

12 월 잠정주택 매매는 전월 대비 2.2% 감소했다. 시장 전망치(mom +0.8%)를 하회해 여전히 주택시장 둔화가 이어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상품 및 FX 시장 동향

달러 약세

국제유가는 베네수엘라 제재 여파가 지속된 가운데 미국 원유 재고가 예상보다 적은 90 만 배럴 증가에 그치자 상승 했다. 특히 가솔린 재고가 220 만 배럴 감소하는 등 수요 증가 또한 이어진 점도 긍정적이었다. 한편, 정유시설의 가동률이 전주에 비해 2.8%p 낮아진 90.1%에 그치며 정재유는 예상보다 적은 110 만 배럴 감소를 발표했다.

달러화는 FOMC 이후 연준의 금리인상 시기 지연 기대감이 높아지며 여타 환율에 대해 약세를 보였다. 특히 연준은 '점진적인 금리인상' 문구를 삭제하고 '금리인상에 대한 인내심'을 언급해 추가적인 금리인상 시기가 하반기로 미뤄질 것이라는 전망된 점도 달러 약세 요인 중 하나였다. 더불어 파월 의장이 자산축소 조기 종료를 시사하는 발언을 한 점도 영향을 줬다. 한편, 브렉시트 재논의에 대해 EU가 반대를 하고 있어 한때 파운드화는 약세를 보이기도 했으나, FOMC 이후 강세로 전환 했다.

국채금리는 FOMC 결과 금리인상 시기 지연 기대감이 높아지며 하락 했다. 그러나 위험자산 선호심리가 높아져 하락폭은 제한 되었다.

금은 FOMC 결과를 기다리며 강보합으로 마감 했다. 구리 및 비철금속은 FOMC 를 앞두고 상승 했다. 중국 상품선물시장 야간장에서 철광석은 0.69% 상승 했으나, 철근은 1.02% 하락했다.

주요 상품	증가	D-1(%)	D-5(%)	주요 통화	증가	D-1(%)	D-5(%)
WTI	54.23	+1.73	+3.06	Dollar Index	95.450	-0.39	-0.70
브렌트유	61.65	+0.54	+0.83	EUR/USD	1.1481	+0.42	+0.88
금	1,315.50	+0.02	+1.96	USD/JPY	109	-0.37	-0.55
은	15.927	+0.56	+3.56	GBP/USD	1.3114	+0.37	+0.34
알루미늄	1,909.50	+0.92	+0.03	USD/CHF	0.9941	-0.05	-0.08
전기동	6,136.00	+1.42	+3.10	AUD/USD	0.7253	+1.37	+1.55
아연	2,686.00	+1.13	+2.52	USD/CAD	1.3149	-0.90	-1.45
옥수수	381.25	+1.06	+0.66	USD/BRL	3.6804	-1.20	-2.10
밀	516.75	+0.68	-1.76	USD/CNH	6.7153	-0.49	-1.15
대두	921.00	+0.22	+0.66	USD/KRW	1116.30	-0.02	-0.98
커피	102.10	-0.49	-1.26	USD/KRW NDF1M	1110.10	-0.61	-1.37

10년물 금리	증가(%)	D-1(bp)	D-5(bp)	10년물 금리	증가(%)	D-1(bp)	D-5(bp)
미국	2.681	-2.87	-5.98	스페인	1.252	+1.70	-5.90
한국	2.047	+0.90	+6.20	포르투갈	1.663	-0.10	-4.80
일본	0.005	-0.40	0.00	그리스	3.906	-5.10	-25.20
독일	0.188	-1.20	-3.70	이탈리아	2.597	-3.50	-15.40